

연재기행

한강 도보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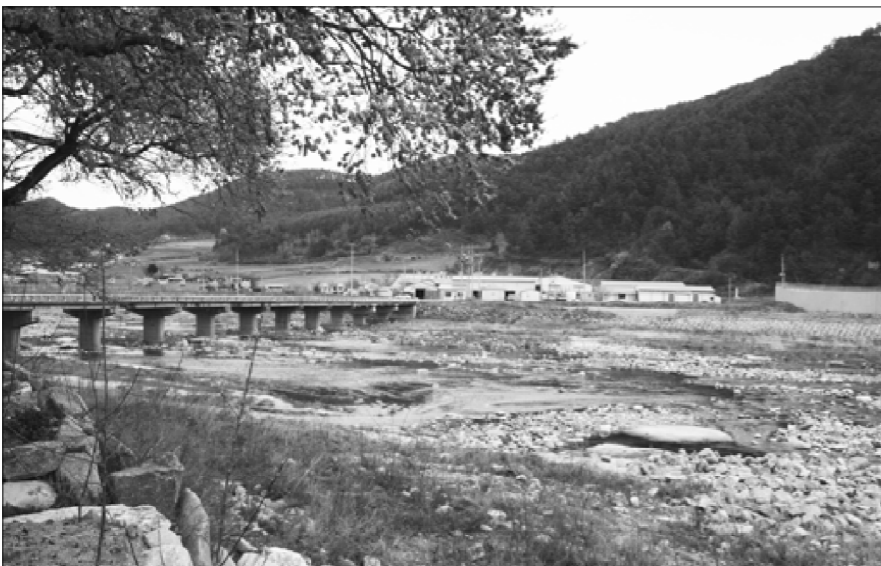
‘한강(漢江)’, 대한민국 힘의 물줄기이자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강이기도 하다. 간선(幹線) 유로연장 481.7km. 법정하천연장 405.5km. 유역면적은 2만 6018㎢, 북한지역 포함 3만 4473㎢이고, 상류부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돌로 나뉘며 남한강을 본류로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관련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한강도보순례’는 한강을 참여자들이 직접 도보로 통해 확인함으로써 한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한강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남한강’ 지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에서는 한강도보순례 연재를 통해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사진·기사·강내영, 흥성인 기자

‘한강’ 끊이지 않는 생명과 배움의 물줄기(2)

한강유역환경청·환경보전협회 ‘남한강 도보순례’ 진행
남한강 발원지 ‘검룡소’에서 ‘총주호’까지 2박3일 도보



바위안 합류지에서 도보순례단이 현지 강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바위안 합류지에서 본 골지천 정경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골지천 지류



도보순례단의 모습



도보순례단이 골지천 도보중 다리를 건너고 있다.

<지난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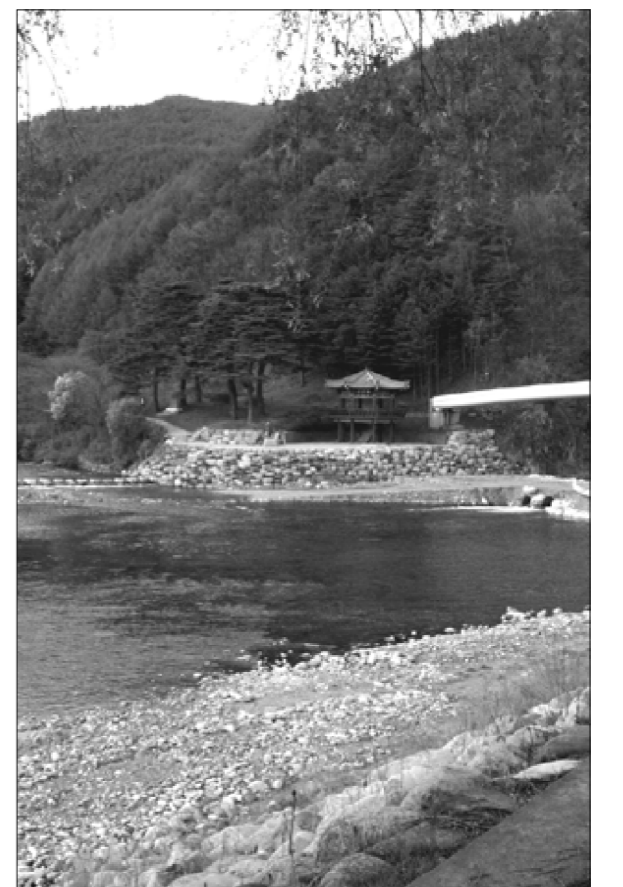
차량으로 바위안까지 이동했다. 골지천 지류를 따라 이동하여 도착한 바위안은 ‘물이 굽이도는 바위안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골지천’과 ‘임계천’의 합류지점이다. 남한강의 발원천으로서, 한강 최상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발원지는 태백시 금대봉(金臺峰)에 있는 검룡소(檢龍沼)라는 것이 정설이기도 하지만 삼척시의 대덕산(大德山:1,307m)이나 중봉산이라는 설이 있다. 정선군 북동쪽 임계면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임계천(臨溪川)이 북부 여량(餘糧)에서 골지천에 합류하고, 이 물줄기는 정선읍 남쪽에서 조양강(朝陽江)과 합류하고 있다. 정선 일대의 수많은 산과 산맥으로 인해 곡류를 하면서, 뱀이 몸을 비드는 형상의 사행천(蛇行川)이 되었다. 골지천과 임계천변을 따라 수많은 소, 여울, 절벽, 백사장, 자갈밭 등이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바위안’에서 시작된 도보순례는 마을길을 따라 이동했다. 석회암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강 주변의 하얀 자갈밭은 또 하나의 볼거리였다.



현지 강사로 참여한 이창철 강사

이곳은 한강의 최상류이기도 하지만 개발의 손이 닿지 않아 기본적으로 수질은 깨끗한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을 제외하면 사람들의 발길 역시 많지 않아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바위안’ 지역의 경작지 주변은 하천과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일부 존재했다. 하천 주변으로 폐비닐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경작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제방 등이 존재하지 않아 홍수 때 수질 오염을 예상케 했다. 한편, ‘골지천’ 주변 절벽에는 철쭉 군락 등 봄에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생장하고 있었다. ‘골지천’ 주변을 따라 걸다보니 ‘구미정’에 도착했다. 구미정은 숙종 때 사정 공조참의를 역임한 ‘수고당 이자 선생’이 정선에 낙향하여 지은 건물로 집현석 주초석에 네모 각 기둥을 세우고 장 마루의 정자를 고적대를 바라보는 암석 위에 주변의 경치를 전망할 수 있게 3칸으로 벽체 없이 건축하였으며, 정자 내부에는 2칸에 걸쳐 온돌 바닥의 방이었으나 지금은 골조만 남아있다. ‘구미정’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실로 장관이다. 맑은 편에 위치한 절벽은 웅장함과 동시에 고요함을 지니고 있으며, 18가지의 경치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서 강사로 참여한 이창철 강사는 구미정의 경치와 어울리는 ‘정선아리랑’을 열창해 참여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도보순례단은 ‘구미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반전 1교까지의 순례를 계속했다. 지금까지의 이동 통로에 비해 ‘골지천’과는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이동을 했지만 전통가옥 및 양봉농가 등을 확인하면서 이동할 수 있었다. 반전 1교에서 아우라지까지 차량으로 이동 후 아우라지에 도착한 순례단은 아우라지의 유래와 지역 경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우라지’는 정선읍으로부터 19.4km 떨어진 거리에 있고 구절리에서 흐르는 송천과 삼척시 중봉산에서 흐르는 임계면의 골지천이 이곳에서 합류하며 이루어진다고 하여 아우라지라고 한다. 이곳에서부터 물길을 따라 서울까지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터로, 이곳에서부터는 ‘강’이라고 부른다. 누추산·상원산·옥갑산·고양산·반본산·왕재산 등에 둘러싸여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합수지점에는 아우라지 처녀상과 최근에 지어진 정자각이 있다. 이곳에는 각지에서 몰려온 뱃사공들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정선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전설에 의하면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아우라지를 가운데 두고 각각 여량과 가구미(가금)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둘은 싸리골로 동백을 따러 가기로 약속하였으나 밤새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뱃배가 뜰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의 안타까움이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리골을 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이나 쌓이지. 사시사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라는 가사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가구미와 여량 마을에는 나루터가 남아 있다. 한편, 이 곳에는 홍수와 장마가 끝나는 독특한 징후가 있다고 전한다. 양수인 송천과 음수인 골지천 중 여름장마 때 양수가 많이 불어나면 대홍수가 예상되고 음수가 많이 불어나면 장마가 끝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기 지 않는 일로 들리지만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는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내려온 자연의 섭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현지 강사로 활동한 이창철 강사는 아우라지에서 ‘정선아리랑’과 구전되어 오는 노래들을 불러 지역의 정감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했다. <다음호에 계속>



아우라지 정경